



해외양돈뉴스

- 홍보부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2년간 양돈장 신축 금지

- 가축분뇨 유출사고로 오수정화책임법 제정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양돈산업은 계열화(수직통합)사업에 따라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95년에 발생한 라군(분뇨저장탱크)의 붕괴로 인한 돼지분뇨 유출사고를 계기로 주민(州民)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는 한편, 주내에 돈사 건축을 2년간 중지시키는 등 엄격한 환경법이 만들어졌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동 주의 양돈산업은 계열화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 현재는 돼지 사육두수가 전통적인 돼지 사육주인 아이오와주 다음으로 많은 미국내 2위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95년 6월 태풍으로 인해 생긴 라군 붕괴로 인한 돼지 분뇨 유출사고는 그 피해규모가 약 3.2ha에 달했고, 하천에 유출된 분뇨량은 약 9만키에 달했다. 이와같은 이유로 금번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99년 3월1일까지 신규참여는 말할것도 없고, 돼지 사육두수가 250두 이상인 육돈 생산농가의 돈사 및 라군 등의 건설이 일시 중지되는 등 실질적인 규모확대가 제한된다. 또한 이 법률에 의해 군에서는 대규모 경영체(사육하는 가축의 생체중이 60만 파운드(약 272톤)를 초과하는 곳)에 대하여는 조이닝(지역에서 돈사 등의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 규정을 각각 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돈사 등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부터 약 450m, 학교와 병원 등으로부터는 약 750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건축하지 않으면 안되

게 되었다.

내년 돼지고기 가격 10~15% 하락 전망

- 금년 돼지 사육두수 4% 증가

미국의 돼지 사육두수가 1년 전에 비해 4% 가량 증가했다.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9월 현재 미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약 6천만두라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올 6월에 비해 약 4% 증가한 수치다. 9월 현재 종돈은 6백95만두로 작년에 비해 3% 증가했지만, 올 6월에 비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미국 농무부는 약 2백90만두의 모돈이 새끼를 낳았으며, 모돈 1두당 평균 산자수는 8.7마리로 이는 작년 4/4분기보다 7% 증가한 수치다. 이에따라 올 가을의 지육 가격은 100파운드당 40달러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 도 돼지고기 가격은 금년보다 10~15%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업계에 '엘리뇨' 피해 경고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 일원의 여러 지역이 올해 혹독한 '엘니뇨 겨울'을 맞게될 것이라고 미국 샌디에고 소재 캘리포니아대학 부설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가 20일 경고했다.

과학자들은 특히 미국 남서부와 동부에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3배나 많은 비가 내리고 거센 폭풍이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하며 북서부주들은 강수량 부족으로 심각한 가뭄을 겪을 가능

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따라 국내 축산업계는 안정적인 사료원료 확보와 식육 수입물량 확보를 위해 엘리노 추이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돼지 고환세포 이식해 파킨슨씨병 치료

돼지의 고환세포를 뇌에 이식하면 파킨슨씨병 증세를 크게 호전시킬 수 있음이 동물실험 결과 밝혀졌다.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대학 의과대학의 폴 샌드버그 박사는 의학전문지 제이처 메디신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나중에 정자로 성장하게 되는 돼지의 세로톨리 세포를 파킨슨씨병에 걸린 쥐에 이식한 결과 파킨슨씨병의 증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샌드버그 박사는 파킨슨씨병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분비장애로 발생한다고 밝히고, 실험실쥐들에 독소를 주입하여 도파민이 들어있는 뇌세포를 손상시킨 결과 파킨슨씨병의 증세가 나타났으며, 이어 이중 일부 쥐들의 뇌에 돼지의 세로톨리 세포를 이식한 결과 증세가 크게 호전됐다고 말했다.

일정 설파메타진 잔류허용기준 변경

- 0.05ppm에서 0.1ppm으로 완화

일본은 돼지고기내 설파메타진 잔류허용기준을 0.05ppm에서 0.1ppm으로 변경,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무역규제의 일환으로 설파메타진 잔류허용기준을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국제기준으

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따라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수출검사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돼지고기 수입검사 면제업체들에 대해 설파메타진, 설파모노메톡신, 설파퀴녹살린, 살파메라진 등의 추가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수출검사시 반드시 음성인 것만 수출이 될 것으로 보여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월까지 돼지고기 36만4천톤 수입

- 작년 대비 28.4% 감소

일본은 지난 8월중 관세감면 조치에 따라 전년 동기보다 144.9% 증가한 69,688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이 중 냉장육은 10,953톤으로 30.8% 감소했으나, 냉동육은 58,735톤으로 365.8% 증가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8월까지 총 363,844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28.4% 감소한 양이다. 이 중 냉장육은 84,241톤, 냉동육은 279,603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0.8%, 28.6% 감소했다.

국별로는 덴마크가 108,019톤으로 가장 많이 수출했으며, 다음이 미국으로 87,551톤, 대만 47,428톤, 캐나다 34,711톤, 한국 31,027톤의 순이었다. 전년 동기 비 증감률은 대만이 73.6%, 미국이 20.8%, 덴마크가 6.5%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22.4%, 캐나다는 6.0%가 각각 증가했다.

500두이상 양돈농가 소득 7백61만엔

일본 농수성 통계정보부는 최근 '96년도 농업경영부문별 통계를 발표했다.

<표>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97.1-8월)

(단위 : 톤, 괄호안은 전년 동기대비 %)

구분	대만	덴마크	미국	캐나다	한국	기타	합계
냉장육	12,331	30	56,543	9,054	5,914	369	84,241(72.3)
냉동육	35,097	107,989	31,008	25,657	25,113	54,739	279,603(71.4)
합계	47,428	108,019	87,551	34,711	31,027	55,108	363,844(71.6)

이 통계에 따르면, 돼지 500두 이상 사육하는 양돈농가의 농업소득은 771만엔(약 5,723만원)이었다. 이중 양돈으로 인한 소득이 538만엔(약 4,045만원)이었고, 기타 소득이 223만엔(약 1,677만원)이었다. 조사대상농가의 평균 돼지 사육두수는 536.1두였으며, 축종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았다.

칠레 2년후 일본에 돼지고기 3만톤 수출 목표

칠레는 향후 2년내에 일본에 3만톤 가량의 돼지고기를 수출할 계획이다. 칠레는 이를 위해 일본에 식육가공시설협회장을 일본에 보내 일본내 돼지고기시장을 조사하는 등 활발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이고 있다.

칠레는 현재 돼지고기는 100% 자급을 하고 있으며, 연간 1만톤 가량의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부위는 삼겹살과 어깨등심, 안심, 등심, 갈비 등 5개품목으로 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풀세트를 수출할 계획이다.

칠레는 돼지고기 가격이 싸고 돼지 질병 방역 면에서 수출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까지 수송기일이 많이 걸리는 것이 흠이라고 한다.

체코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66.9kg으로 세계 최고

- 우리나라는 19.3kg으로 세계 25위

전세계에서 체코가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농무성이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체코인들은 작년에 1인당 64.8kg(지육 기준, 이하 같음)

의 돼지고기를 소비한데 이어, 금년에는 66.9kg의 돼지고기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돼 세계 최고 돼지고기 소비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헝가리로 66.7kg, 3위는 덴마크로 65.5kg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밖에 대만이 10위로 42.9kg, 중국이 33.0kg으로 17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이 21위로 28kg, 우리나라가 19.3kg으로 25위, 일본이 16.8kg으로 28위를 차지했다.

네덜란드 돼지콜레라 계속 발생

- 8월까지 총 366건 발생

국제수역사무국(OIE) 정보에 따르면, 7월19일부터 8월11일까지 네덜란드 오베리셀지방의 비육돈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농장의 돼지 사육두수는 508두였으나 전부 살처분되었다. 이는 네덜란드에서 366번째로 발생한 것이고, 오베리셀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 농장에 돼지콜레라가 침입한 원인은 발생 지방에서 예방차원에서 도태한 자돈을 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네덜란드는 지난 2월 돼지콜레라가 최초 발생된 이래 감염돼지의 살처분으로 돼지 사육두수가 25%나 감소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표〉 돼지고기 소비량 상위 20개국 현황 (단위 : kg)

순위	국 가	1996	1997	순위	국 가	1996	1997
1	체코	64.8	66.9	11	아일랜드	38.7	38.8
2	헝가리	60.3	66.7	12	폴란드	40.5	38.5
3	덴마크	65.7	65.5	13	포르투갈	37.5	38.0
4	벨기에	53.7	58.1	14	프랑스	35.8	36.3
5	오스트리아	57.7	57.7	15	이탈리아	35.0	34.9
6	스페인	54.1	54.1	16	스웨덴	34.5	34.3
7	독일	48.6	49.9	17	중국	32.9	33.0
8	홍콩	46.8	48.8	18	캐나다	32.0	31.9
9	네덜란드	44.1	43.4	19	스위스	31.8	30.3
10	대만	42.4	42.9	20	싱가포르	30.9	30.0

주 : 1996년은 실적, 1997년은 예측치

E '98년 3월까지 돼지 생산 2% **U** 감소 예상

'96년 4월부터 97년 4월까지 EU의 돼지 생산량이 1.7% 증가해 약 1억1천7백만두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돼지 생산 증가세는 '96년 8월에 시작되어 12월에 강세를 더하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EU 회원국 가운데서는 네덜란드만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돼지콜레라 파동 여파로 4.3% 감소했다. 앞으로 EU 돼지 생산량은 '98년 3월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기간 네덜란드는 1년전에 비해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EU 총 돼지 생산량은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인공수정이 돼지콜레라 감염 요인 중 하나

최근 영국 캠브릿지 수의대학교의 미카엘 박사가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유행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감염 요인 중 하나로 유행초기에 인공수정소에 균이 들어가 정액이 오염되어 단숨에 퍼진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영국의 캠브릿지 수의학 돼지질병정보센터에 의하면, 유럽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독일에서는 16개의 농장에서 발생하였고 네덜란드에서는 385개의 농장에서 발생해 1백만두 이상에 전염되고 5백만두 이상이 이동금지조치의 대상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발생지인 독일에서는 발병률이 적고 오히려 네덜란드에서 많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질병정보센터는 인공수정소에서의 정액 감염을 하나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유럽에

서 돼지의 인공수정은 널리 보급되어 네덜란드에서는 70%, 덴마크에서는 4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아프리카돈콜레라 비발생 증명받아

미국의 동식물 보건국(USDA APHIS)는 사르디니아(Sardinia) 지역을 제외한 이탈리아의 전 지역에서 아프리카돈콜레라가 부존함을 공시하였다. 1983년 이래 이탈리아 본토에서 동 질병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고시로 인하여 이탈리아로부터의 돼지고기 생산물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아직 돈콜레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건조된 돼지 생산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는 계속된다.

브라질 러시아에 돼지고기 4만톤 수출계약

브라질 돼지고기 수출연합회(The Association of Brazilian Pork Exporters)는 브라질 돼지고기 수출업체가 러시아와 향후 1년간 돼지고기 4만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정도 물량은 러시아의 연간 돼지고기 총 수입량의 약 10%에 해당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브라질의 돼지고기 주 생산지인 남부 지역의 돼지고기 생산과 가공업체를 둘러보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남부에서는 브라질의 연간 돼지고기 생산량 약 1백60만톤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고 향후 매년 3만5천톤 정도가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 최대의 돼지고기 수입국인 이탈리아도 조만간 브라질 돼지고기 업체를 방문해 거래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養豚**

